

# “5급 행정직 승진 5천만원·기술직은 1억5천만원” 공노총 위원장 ‘매관매직’ 발언 충격

## 박성철 위원장 “하위직 정년차별이 부패 원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2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위급직의 승진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28일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체로 행정직은 5천만원, 기술직은 1억5천만원의 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연장돼 3년정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급여와 공무원 연금이 늘어나고 과장 직함을 갖기 때문에 5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쥐도 손해

가 아니라 당사자들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급으로 승진하려면 먼저 6급이 돼야하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매관매직이 일어난다”면서 “다만 그 금액이 5급 승진보다 적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매관매직의 유혹을 느낀다”면서 “그래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우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급 자리가 적은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매관매직이 많이 일어나지

만 서울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런 공무원 부패 문제에 대해 국가청렴위에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노총은 전국조직이어서 조합원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매관매직을 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폭로할 경우 공직 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 5급 이상에게는 60세, 6급 이하에게는 57세의 정년을 적용하는 차별이 이런 부패문제 주요 요인”이라면서 “외환위기 당시 하급직의 경우 13만명이 해고됐고 정년 61세에서 57세로 줄었는데, 하급직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합법 공무원노동단체인 공노총은 전국적으로 이런 매관매직이 많이 일어나지

# 이-팔, 내년말까지 평화협정 체결

## 부시 “팔, 독립국가 창설...이, 유대인국가 존속” 선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중동평화회의가 27일(미국시간) 2008년 말까지 평화협정 타결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 교착상태의 중동평화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예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중동평화회의에서 이-팔 양측이 2008년 말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목표로 한 평화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자협상의 즉각 개시를 선언했다.

부시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2개국가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모국이 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로 존속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다짐했다.

올메르트 총리도 “중동 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 측과 고트스런 타협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아나폴리스 회의에 참석중인 아랍 국가들에 대해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측이 미국 측의 이런 중재안을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며,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이스라엘이 주장한 ‘유대인 국가’라는 표현과 팔레스타인이 고집한 ‘1967년에 시작된 점령을 종식

한다”는 민감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해온 반면, 팔레스타인측은 ‘유대인 국가’라는 표현이 들어갈 경우 이스라엘 건국 당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이 보장돼야 한다는 자신들 주장을 포기해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 반발해왔다.

그러나 부시는 “우리의 목표는 협정을 마무리하는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우리가 할 일은 양측의 협상 노력을 고무하고 성공에 필요한 지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팔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로드맵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미국은 로드맵에 따른 양측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평화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달 12일 개최하고, 올메르트 총리와 압바스 수반은 협상 진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 만나기로 했다. /연합뉴스



파리 폭동 확산

지난 25일부터 파리 북부 교외지역인 빌리에 르 벨 일원에서 사흘 연속 이어진 젊은이들의 폭력 시위로 차량과 경찰서, 도서관, 유치원 수십 동의 불에 타고 시위대의 총동로 다친 경찰관도 100명을 웃도는 등 소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밤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는 채 순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勞 “직급별 차별 부당” 政 “일부 검토중”

## ■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이뤄지나

## 세계 “공기업·민간기업까지 불뚱 튄다” 반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와의 단체·임금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지출, 공기업·민간분야 파급효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하급직 정년연장 강력 요구”=28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임금·단체교섭의 실무교섭이 최근에 종료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본협상이 시작된다. 노조는 처음에 요구했던 362개 사항의 대부분을 철회하고 핵심 요구사항 5건만 본협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노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하위급직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 안건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측은 하위급직 정년연장은 ▲외환위기 당시 내려갔던 정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며 ▲공무원 직급별로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년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측은 정년문제는 공무원 부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 “좀더 고려해봐야 한다”=정부는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수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

력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하위급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정년이 늘어나면 ▲예산에서 가져가는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인사체제가 심해지며 ▲정년 상승이 공기업과 민간부문에도 파급되고 ▲정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지며 ▲‘공무원 철바탕’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정년 연장을 공무원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 공무원 정년을 60세가 아닌 58세나 59세로 통일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공무원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곧바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초래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젊은 인력의 채용 대신에 고임금의 고령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야 하고 이는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김정일 최측근’ 김양건 北 통전부장 서울 방문

## 이재정 통일 “10·4 정상선언 협의”...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도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29일부터 3일간 남북정상선언 이행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을 공개 방문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8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김양건 부장 등 북측 대표 5명이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 논의와 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내일부터 3일간 방남한다”고 밝혔다.

통일전선부장의 한국 방문은 2000년 김용순 부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 핵심 지도부 간 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정상선언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측 대표들은 남측 고위 당국자 및 경험 관련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정상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7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조선협력단지 건설, 3통문제 해결 등 경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을 직접 시찰해 경험에 대한 상호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북측이 도착하는 대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의 서울 방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이 아니고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올해 정상회담의 추진부터 정상선언 도출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한반도 종전선언 등과 관련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지 주목된다.

한 당국자는 “정상선언 합의사항 가운데 총리회담에서 다루지 못한 종전선언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부터 3일간 남북정상선언 이행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연합뉴스

국립보건연구원 “국민 좋은 의약품 개발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손바닥이 붉은 좋은 약”인 큐텐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큐텐지킴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미세 입자, 유해기생충, 방사능, 화학적 오염, 노년기, 노약자  
- 눈의 건조감과 안구, 이명증  
- 혈액 순환장애, 동맥 경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노인성 질환, 노년기, 노약자, 수축기심부전증, 이명증의 보충

큐텐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에이스**  
www.kukje.com  
고객센터 080-022-2200